

原子力發電의 役割이 重要

“다음은 죠지 부시 美國大統領이 지난 5月 8日~10日 美國 워싱턴D.C.에서 열린 Nuclear Power Assembly 89會議에 보낸 축하서신 전문으로서 美國내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내용이다.”

美國 大統領으로서 本人은 石油의 海外依存度를 줄이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綜合的이고도 균형있는 國家에너지政策의 수립이 미국의 經濟成長과 에너지自立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

고 있습니다. 高度의 安全基準이 유지될 수 있다면 原子力發電은 반드시 미국의 에너지資源으로 開發되어야 하며, 더우기 供給이 불안정한 石油의 해외의존도 증가로 國家에너지 將來에 있어 原子

「포스트·체르노빌」時代의 原子力

세가지의 關鍵

田中 靖政

〈日本 學習院大學 法學部 教授〉

1. 「沈默의 大多數」가 裁判官

1988年 이후의 「포스트·체르노빌」時代의 原子力은 일반가정의 주부를 포함한 「沈默의 大多數」의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 같다. 「脫原電」을 주장하는 「反對派」는 검찰관, 「推進派」는 변호인 일 것 같으면, 먼저 「침묵의 대다수」는 검찰관과 변호인 쌍방의 주장을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國民의 소리는 神의 소리」라고 일컬어지는 반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판사로서의 「침묵의 대다수」는 당연히 발언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2. 反原電·脫原電의 「集中豪雨」

오늘날 서적이나 주간지 그리고 TV에 이르기

力發電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美國은 原子力技術을 誕生시켰으며, 또한 21세기에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깨끗한 原子力發電의 새로운 시대로 世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현재 美國에서는 100基 이상의 原子力發電所가 國內 電力의 거의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New England와 New York 등지에서는 과도한 油類發電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原子力産業界의 노력으로 國內 에너지自立도는 더욱 強化되었으며,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도 減少되고 있습니다.

安全한 原子力發電으로 國家에너지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美國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원자력발전소 認許可節次를 간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原子力規制委員會는 이러한 認許可

節次的 간소화조치를 강구중에 있으며, 本人 역시 에너지省 長官에게 안전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보장된 추가 개선조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리고 國會와 협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未來가 곧 現在」(The Future is Now)라는 本會議의 主題는 우리 자신을 통렬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原子力産業界에 改革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며, 運營許可를 받고 運轉할 준비가 되어있는 原子力發電所들이 稼動되어야 할 時期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10년, 나아가 21세기의 國內 에너지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原子力産業界가 제 위치를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디 즐겁고 生産的인 會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까지 마스크는 反原電이나 脫原電의 主題로 넘치고 있다. 1987년의 봄에 시작한 「1,000만명의 탈원전 서명운동」에도 탄력이 불기 시작했다. 原電 지역주변에서도 反原電·脫原電의 움직임에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트·체르노빌」시대의 원자력은 마스크, 시민단체, 현지의 漁協이나 農協으로 부터 비판과 반대의 「집중호우」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인들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다. 먼저 「反對派」는 「集中豪雨」의 에너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험한 바로는 2년에서 3년이 고작이다. 또 「반대파」는 「침묵의 대다수」가 반대운동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반대운동에 共感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추진파」는 「집중호우」에 견디어 내며, 「침묵의 대다수」의 기대에 부응할 방법을 基本에서 부터 학습할 필요가 있다. 「침묵의 대다수」가 결단코 용인하지 않는 것은 우연히 거듭되는데서 일어나는 큰 「原電事故」와, 그러한 사고를 일으킨 「怠慢」과 「無責任」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비 온후에 땅이 다져진다」는 제4의 未來

「집중호우」는 언젠가는 그치게 된다. 「집중호우」가 그친후 「추진파 만이 살아 남는다」, 「반대파 만이 살아 남는다」, 「양쪽 모두 살아 남지 못한다」, 「양쪽 모두 살아 남는다」는 것중 그 어느 하나가 남게 된다. 이 가운데 「침묵의 대다수」로서 가장 바람직한 未來라는 것은 아마도 네번째인 「추진파 반대파 양쪽 모두 살아 남는다」는 미래일 것이다.

이 제4의 미래는 「집중호우」를 각각 뚫고 살아남은 건장한 「추진파」와 건장한 「반대파」로 이루어지는 미래일 것이다. 「침묵의 대다수」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비 온후에 땅이 다져진다」는 상태라는 것은 이들 건장한 「추진파」와 건장한 「반대파」간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수용면에서도 건전하게 성장하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原子力이다.